협회소식 / 87
건축계소식 / 89
신기술 신자재 / 96

협회소식 KIRA news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8월 16, 17일
계획부문 9월 10일 접수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01한국건축문화대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준공건축물부문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8월 사이에 준공된 국내 건축물의 건축사 · 시공자 ·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건축물부문은 건축분야 및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와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준공부문이 8월 16, 17일이며, 계획부문은 9월 10일로 우리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주택협회가 후원한다. (본지 표3 참조)
문의: 우리협회 홍보편찬팀(02-581-5711~4) http://www.kira.or.kr

■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2000년 5월 ~ 2001년 8월 사이에 준공된 국내 건축물
· 응모자격: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응모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 (건축개요, 작품설명, 8"×10" 크기의 건축물사진 10장 내외, 설계도면,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 건축물대장 수록)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패널제출 시일은 별도 통보
- 입상 건축물이 공동설계 또는 공동시공 작품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시상함
- 법인 또는 사무소 명의로 출품 가능

▶ 계획건축물부문
- 패널(가로90㎝×세로120㎝)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75㎝×90㎝ 또는 90㎝×75㎝, 높이 75㎝이내) 1점 제출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함
* 작품주제: 미세지역성의 건축적 해석과 표현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준공건축물부문 : 2001. 8. 16(목) ~ 8. 17(금) 09:00~18:00
· 계획건축물부문 : 2001. 9. 10(월) 09:00~18:00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 출품원서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 (출품료는 없음)

■ 심사위원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추후 명단발표)

■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 표 : 2001년 10월중 (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 (일정 및 장소 추후 공고)
-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추후공고)

■ 기타 출품규정

- 계획건축물부문은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널 및 모형 제작작업을 금함
- 준공건축물부문 제출 사진첩중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및 본상 수상작 패널은 사후 상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 작품반출 (계획건축물부문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2001. 9. 17(월) ~ 9. 18(화) 09:00~18:00 (단, 입선이상 수상작은 전시회 종료후 반출)
- 지정된 반출일에 찾아가지 않은 작품은 주최측에서 임의 폐기처리하게 되니 유의바람

이사회

제7회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7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분회설치및운용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분회설치및운용규정 개정(안)중 '…해당지역 건축사회를 폐쇄한 경우, 본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 일부 문구를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광주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민원사무처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서류의 발송 및 통제, 확인, 점검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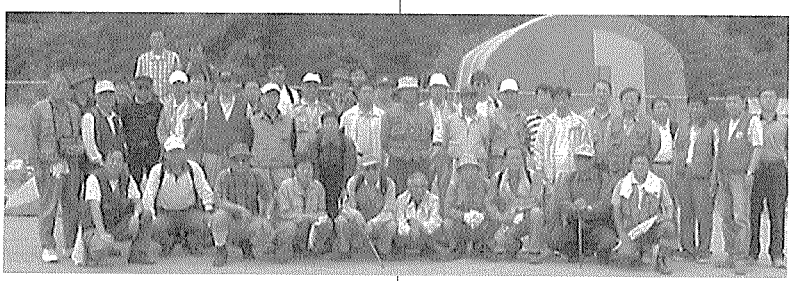
· 제4호의안 : 추대회원 적용기준 변경 승인의 건
- 부결키로 함.

· 제5호의안 : 법인세 업무관련 용역 시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정부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신고사항 조사강화방침에 따라 본협회의 법인세 신고 납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 시도건축사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해 협회의 회계, 세무업무의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관련업무 용역의뢰 - 황용현/공인회계사, 세무사)

인천건축사회, 등반대회

회원 친목 도모 청계산 등반

우리협회 인천건축사회(회장 김영배)에서는 지난 5월 26일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도 포천군 소재 청계산에 올랐다. 김영배 회장 외 43명이 함께 한 이번 등반 야유회를 통해 어려운 건축경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천 건축사뿐만 아니라 전 회원의 건투를 기원했다.



인천건축사회 등반대회

2001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 자격특별전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00073 김기근 00091 김남석
00237 양현숙 00261 이태봉
00353 최명만 00508 김근태
00524 김석대 00631 추경돈
00706 최창현 00817 김상기
00927 조재성 00997 최금호
01023 최선자 01183 이유정
01234 남용호 01444 이승훈
01575 오상헌 01581 이종서
01697 노진홍 01786 문병인
01998 박철민 02376 배문기
02445 이진우 02458 조시연
02489 양지현 02535 노은희
02589 정순원 02699 최연수
02733 김종관 02930 박영환
02955 김창동 02974 최동희
03067 방의성 03089 차유성
03095 김승주 03135 여석구
03293 이정지 03640 김태균
03732 김수생 03780 홍재영
03807 박 철 03889 박동국
03899 김진성 04080 이홍준
04229 박진홍 04432 정근수
04534 임채환 04539 최용승
04613 박상현 04762 이재형
04879 이 호 04927 이연우
05051 남석우 05174 김소영
05209 문재호 05244 유금열
05268 황준식 05324 이종석
05369 박영보 05390 남희우
05558 이선경 05637 한호진
05640 박규상 05748 이종수
05799 강정원 05921 이광훈
05944 백명현 05946 한용진

건축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6월 8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규제완화의 부작용 및 시대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가 후원하고 건축학회에서 주최한 건축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 8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교통부가 건축제도 개선 용역을 건축학회에 발주한 내용으로 용역에 대한 중간발표 형식으로서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목적을 두고 개최됐다.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에 대한 토론회는 오는 9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령의 절차, 기준 등의 개선 방안

-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건축전문공무원제 도입(특정직 5급/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자격소지자/공무원과 동일한 처벌)
- 일정규모 이상 용도변경 허가제로 전환: 현행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의한 허가와 신고의 대상 범위를 새롭게 마련
- 공사감리제도의 개선: 관련법 통합 일원화 방향, 건축공사감리법(가칭)제정(건축과 소방, 전기, 통신도 통합)
- 사용승인 검사제도 개선: 사용승인 과정에서 공공(허가권자)의 역할 수행 필요(사용승인 업무범위 설정)
- 건축허가수수료 현실화: 비현실적인 구조에서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를 위한 조사검사업무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다.
- 주민 공동체의식 강화(건축협정제도) 도입: 해당지역주민이 공동으로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원 및 법적 지위 보장, 개발행위허가 자문회의 구성(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하여 허가함)
- 차면시설의 설치 의무화: 주택 등에서 창문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며, 건축주가 협의시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함.
- 재래시장의 환경정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래시장 지역을 공고하고 별도의 호나경정비 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법상 건축물 완화조항 근거 있음.(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법상에서 구역지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피난 및 소화를 위한 통로의 설치: 대지 안에는 재실자의 피난, 인명구조, 소화활동에 필요한 통로가 필요하다. 소요너비 및 길이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는 연구가 필요함.
-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 및 지구와 건축법령상의 적용과 연계성: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용도지역관리를 위한 행위제한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율.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도시계획법에서 이러한 개념은 삭제한다.

◇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등의 개선 방안

-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의 개선: 건축물의 높이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제시. 건축물의 용도, 지역, 도로의 너비, 대지면적, 대지형상 등을 고려한 사례
-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규정의 개선: 일본과 영국의 일조 및 일영 기준 사례 제시
-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의 설정: 일조기준(동지 때 4시간 일조/ 동지 때 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일조)을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설정 기준제시
-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설정: 대지안의 공지 규정 필요. 지역지구에 따른 공지규정을 마련(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기준설정이 되도록 함)
- 주택의 용도분류 합리적 개선: 법적 행정적 분류가 아닌 거주성에 근거한 분류, 주택생산 및 관리와 소유시스템이 일치하는 분류, 주거환경개선 및 보호에 바탕을 둔 분류

2001년도 건축가축제 및 대한민국건축대전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일반공모전 주제는
「미래 도시건축의 공공성」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최하는 2001

년도 건축가 축제 및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오는 11월 19일(월)부터 11월 28일(수)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제20회 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해 초대작가 전시회, 2001년도 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제6회 건축사진전 수상작이 전시되며, 후원업체 홍보전이 함께 열린다.

문의: 02-744-8050
http://www.kia.or.kr

2001 건축가 축제 주요 일정

▶ 개막식: 2001. 11. 19(월) 오후 2시
▶ 시상식: 2000. 11. 28(수) 오후 3시
▶ 전시기간: 2000. 11. 19(월)~11. 28(수)
▶ 행사내용:
· 제20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 (일반/초대작가부문)전시회
· 제6회 간축사진전 수상작 전시회
· 2001년도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전시회
· 후원업체 홍보전

〈일반공모전 일정〉

· 주제: 미래 도시건축의 공공성
· 1차 접수: 2001.9.11(화), 오후 5시까지 협회 사무국
· 2차 접수: 2001.11.16(금), 정오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 1차 예비심사: 2001.9.17(월)~9.19(수)
· 2차 본심사: 2001.11.16(금), 오후 3시부터
· 3차 공개심사: 2001.11.17(토), 오전 10시
· 1차 심사발표: 2001.9.21(금), 협회 홈페이지
· 2차 심사발표: 2001.11.19(월), 협회 홈페이지
· 수상작 설명회: 2001.11.28(수), 오전 10시, 예술의전당
· 작품 반출: 2001. 11. 28(수)~11. 29(목)

제17회 부산건축대전

일상성 · 부산성(日常性 · 釜山性)
-일상적 가치를 통한 지역성의 탐구-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제17회 부산건축대전의 개최요강이 발표됐다. 「일상성 · 부산성(日常性 · 釜山性) - 일상적 가치를 통한 지역성의 탐구」란 주제로 열리는 제17회 부산건축대전은 일반공모부문과 초대작가전으로 이루어진다.

작품전시는 2001. 10. 25(목)~30(화) 부산 학생교육 문화회관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전화 051-469-7637)
홈페이지 http://archiblue.com

〈일반공모부문〉

• 응모일자 : 2001. 6. 19(화)~21(목) AM 10:00~PM 5:00
• 응모처 :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9-11 아키빌딩 7층
• 작품제출 : 2001. 10. 20(토) AM 10:00~PM 5:00 (초대작가전 동일)
부산 학생교육 문화회관 1층 전시장
• 작품심사 : 2001. 10. 22(월)~2001. 10. 23(화)
공개심사 2001. 10. 23(화) AM 10:00
부산 학생교육 문화회관 1층 전시장
• 작품전시 : 2001. 10. 25(목)~10. 30(화) 단 29(월)은 휴관.
• 시상식 : 2001. 10. 25(목) PM 2:00
본 상 : 10점 이내
특 선 : 10점 이내
(특선이상 입상자 해외건축기행 참가 특전부여)
입 선 : 다수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제2차 POAR 건축 트레킹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해미읍성-개심사-문수사-덕산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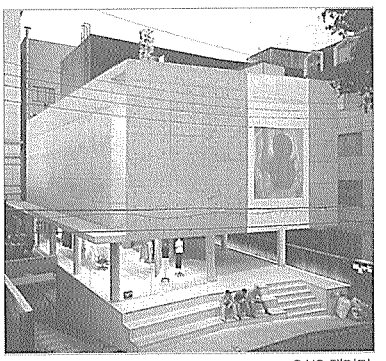
초등학교 5년생 이상 건축인 가족이 참여하는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축인 POAR는 2001년 여름, 이 땅의 산하를 한 뜸 한 뜸 밟아가는 건축 트레킹의 돛을 올린다. 이는 지난 1999년 8월 14, 15 양일간에 펼쳐졌던 "창덕궁 돈화문에서 화성행궁까지" 약 34㎞에 걸친 도시문화체험코스 개발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로서 3~4개월에 한 차례, 정례적인 건축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몸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산하, 그 안에서의 건축을 만나보는 행위를 함께 나누고자 실시된다.

- 행사일시: 2001. 8. 12~14 (2박 3일)
- 대상지: 해미읍성-개심사-문수사-덕산온천(총 보행거리 약 30㎞)
- 최초의 집합장소 및 시간: 해미읍성 (8월 12일 오전 11시 성문 앞 집합)
- 참가비(예정): 5만 5천원 (숙소 2박 및 6끼 식사비, 온천욕, 기념품 및 자료 비용 포함,
집결지 도착 · 해산에 따른 교통비는 개인 부담임, 간단한 취사 도구 지참 요함)
- 최대 참가인원: 100인 이하로 제한 예정임
- 프로그램 주제: 문화의 시대, 건축과 건축인의 존재감 찾기(초중고생 프로그램 별도 준비)
- 특강: 충남권 고건축에 관한 강의(현지 건축사가 초빙 예정)
- 참가신청: 2001년 7월 31일 한 (선착순)마감,
초중고생이 포함된 가족(2인 이상)단위 신청시 총 금액의 10% DC예정
- 문의: 담당자 박재현 연구원
02-519-6528
poar@chollian.net,
www.poar.co.kr 게시판 참조

제12회 김수근 문화상

김종규의 CAIS갤러리

공간 설립자인 고 김수근씨의 건축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김수근문화상의 제12회 수상자로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CAIS갤러리」가 선정돼 지난 6월 14일 공간사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많은 건축인과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해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아울러 제11회 김수근 문화상을 수상한 승효상의 「웰컴시티」에 대한 전시회를 관람했다. 전시는 7월 14일까지 공간사옥 지하 전시장에서 계속된다. 심사는 김병현, 민현식, 박길룡, 조성룡씨가 맡았다.



CAIS 갤러리

심사후기

올 해로 12회를 맞는 「김수근 문화상」후보로 김영준 김봉열 김준성 이종호씨 등으로 구성된 김수근 문화재단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추천해온 작품에는 현암사/ 권문성, 고성군보건소/ 김승회, 카이스 갤러리/ 김종규, 영월 구인원/ 정기용, 담양 한빛고등학교/ 조건영, 백선 바오로의 집/ 최두남, 어유지 동산마을외 2 작품/ 조병수, 동은재/ 헬렌 박 등 10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수근 문화상의 심사기준으로 대상건물이 가진 창의성 시대성 한국성 완성도 기술적 성취 등이 열거되고 있다. 매년 우리 모두의 관심 속에서 선정되는 한 점의 건축은 이들 기준에 의한 개별적 평가에 의하기 보다 이를 통틀어서 현 시점에서 어떤 획기적인 건축적 성취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축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 심사위원은 의견을 같이 하였다. 추천작품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 교환 끝에 그 중 두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이 둘은 사십대 초의 젊은 작가에 의한 중소규모의 도시건축물로 오늘의 도시현실에서 당면한 건축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해결은 매우 대조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건축에 대한 의식의 넓은 폭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주의를 끌게 한다.

현암사는 낡은 주택을 개조한 기존출판사 사옥을 다시 개조 증축한 건물이다. 서울 아현동의 주거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한 기업체의 사옥으로 내외부에서 전개되는 질 높은 공간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그 후면의 주택가와의 관계를 뛰어나게 처리하고 있다. 주택구조를 살린 데서 온 적절한 건축 스케일, 조적조 기존건물에 이와 다른 건축어휘로 된 목조건물이 첨가되면서 만들어진 세 덩어리의 건물군, 외벽에 첨가된 발코니와 차양이 만들고 있는 밝은 표정 등으로 동네입구에 자리잡은 기업체 건물이 전연 어색하지 않다. 작가의 밝고 따뜻한 감성이 그대로 건축에 반영된 듯 활기찬 건물 외관과 내외부 공간은 퇴화하고 있는 동네에 활력을 넣어 주고 있어 보인다.

카이스 갤러리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 뒷길에 위치한 전시장과 근린생활시설 공간을 주로한 건물로서, 자 모양으로 극히 제한된 정면성 만을 허용할 뿐 전면에서 후퇴한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사면이 인접건물 후면에 감추어져 버리는 대지의 형상을 그대로 채우고 있다. 이 건물에서 받는 첫 인상은 여기에서 어떤 조형적 의미를 가진 외형을 만들기 보다 철저하게 외피가 만드는 이차원적인 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이 주변 건물들의 좋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얇은 종이 장처럼 무게를 잃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무표정한 콘크리트 벽을 건물의 전면으로 시작하고있는 자형의 건물은 그 후면에 가서도 의도적으로 재료의 중량감을 배제한 외피로 구성되고 있다. 콘크리트, 유리의 판과 내후성 강판을 주재로 하는 외벽이 마치 막으로 된 스크린을 보는 것 같고 어두운 강판의 색상과 질감과 함께 이 지점에서 매우 적절해 보인다. 건물 후면 압구정로 쪽에서 루이뷔똥과 캘빈클라인 건물사이로도 배경으로서의 풍경을 훌륭히 만들어 주고 있어 건물의 역할이 그만큼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이 태도는 건물의 내부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배경으로서의 건축으로 그대로 지속된다. 선정된 재료와 이를 구축하는 공법이 솔직하게 만들어낸 냉정하고 무표정한 공간이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과 건축의 관계는 매우 직접적이고 그만큼 이 공간은 더욱 감동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카이스 갤러리는 도시 건물에서 보편적으로 찾는 정면성의 중요성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가 익숙해 있는 보기 좋은 디자인의 건축도 아니다. 작가는 이 장소에서 구현해야 할 건축의 실체를 건축과 도시, 한 건물과 그 주변의 건물, 그 내부에 수용되는 프로그램과 공간과의 상호관계 등 상대적인 관계라고 보고, 외형의 의미나 공간의 형태적인 질 또는 공간구조의 formality 같은 일반적인 건축의 가치개념에서 단호하게 벗어난 건축에의 접근을 보여 주고있다. 작가가 그 동안 집념을 가지고 추구해온 랜드스페이스 의 건축이 어려웠던 과정을 거쳐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진 건물로 완성되었음을 본다.

심사위원은 전원 일치로 금년의 수상작으로 김종규의 카이스 갤러리를 선정하였다. 도시와 건축이 가진 문제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도전적인 시험을 하는 데서 창발된 건축을 보여준 작가에게 축하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의 기대 또한 큼을 알린다.

(주)코스펙, 2001하계 ADT 교수교육

7월 2일부터

(주)코스펙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대학 및 고교의 건축 CAD 교육 활성화를 위해 겨울, 여름방학을 이용해 당사의 관련학과 프로그램을 연수 교육해 오고 있다. 연수 교육과정은 CAD를 처음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과 현재 CAD를 사용하시거나 교육을 담당하시는 그룹으로 분할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CAD S/W로는 autodesk 사의 건축전용 AutoCAD인 Architecture Desktop (ADT)와 일반 CG S/W인 3DS Max를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 전문화한 3DS VIZ를 이용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홈페이지(www.cospec.co.kr, www.autodesk.co.kr)참조.

◇ 교육일정

1) 기초 CAD 교육 과정

- 참가대상 : CAD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초보적인 수준의 사용자
- 교육기간 : 1차 2001년 7월 2일~4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2차 2001년 7월 5일~7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2) 응용 CAD 교육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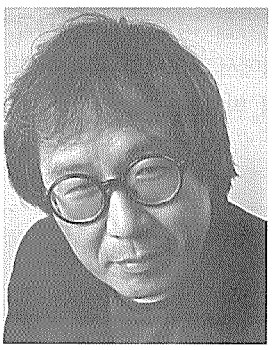
- 참가대상 : 현재 CAD를 교육하거나 1년 이상의 사용자
- 교육기간 : 3차 2001년 7월 9일~11일 (오전 10시 00분~오후 5시)
  4차 2001년 7월 12일~14일 (오전 10시 00분~오후 5시)

◇ 교육내용 : ADT R3.0, 3DS VIZ R3I, Cadpower 21s 외

◇ 문의 : (주)코스펙 정보시스템사업부 담당 강효주
(전화 02-584-6480
E-mail : friend@cospec.co.kr)

승효상회원,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2002 올 해의 작가」

건축인이 선정되기는 처음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회원이 건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하는 '올 해의 작가' 중 견작가부문에 선정됐다. 2002년도 '올 해의 작가' 원로작가부문에는 전혁림씨가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1995년도부터 '올 해의 작가'를 선정하고 작가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에 크게 기여하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향후 한국미술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하여 그 작품을 집중 전시함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창작의지를,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가능성과 그간의 성과를 서로 확인하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술관 측은 "승효상은 건축의 공간적 배경을 이루는 자연조건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인문사회적 환경, 시대적 환경까지 탐구해 도심 속에서의 건축의 참된 의미를 가지도록 한다."며, "이번에 중견, 중진부문 작가로 승효상을 선정한 것이 한국건축에 대한 이해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해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덕수궁미술관과 함께 올 해의 작가전을 마련하여 이원체제로 운용하며, 승효상 회원의 전시는 본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리고 원로작가 전혁림씨의 전시는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5회 대학생 공동주택 설계 공모전

주택공사에서 8월 24일까지 접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대학(원)생들에게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친화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대한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안과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5회 대학생 공동주택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내용**

▷공모대상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단위Block의 공동주택 설계
- 단지배치, 주동계획, 단위평면 개발 등

▷공모주제 :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친화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방안

▷착안사항 :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변지형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단지내
주민간의 교류와 공동체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주택단지 모델제시

◇ **공모일정**

- 참가신청기간 : '01. 6.18(월)~6.22(금) 17:00까지
- 작품접수기간 : '01. 8.22(수)~8.24(금) 17:00까지
- 작품 심사일 : '01. 8.28(화)~8.29(수)
- 당선작 발표 : '01. 8.31(금) 10시 이후 주택공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시 상 식 : '01. 9. 3(월) (예정)
- 당선작 전시 : '01. 9. 3(월)~9.7(금) (5일간)

◇ **공모절차**

▷ 응모자격 : 신청일 현재 전국의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이내 공동작품으로 응모가능

▷ 참가신청

- 신청 일시 : '01. 6.18(월)~6.22(금) 17시까지 공사에서 배부

한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방문, E-mail, Fax, 우편)
- 신청서 배부 : 각대학 송부(복사사용가능), 공사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Download받아 사용, 또는 신청장소에서 직접교부
- 신청장소 : (우편번호 463-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본관8층) 대학생설계공모전 담당자
  팩스 031-738-4139, E-mail (heyjoe@jugong.co.kr)
- 신청번호 확인 : 방문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6월25일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번호를 개별적으로 확인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01. 8.22(수)~8.24(금) 17:00까지 (시간초과시 접수받지 않음)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작품의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대한주택공사 본관 3층 대회의실
- 제출물

* 도판 : A1 Size(841㎜×594㎜) 2매 (규격, 매수 위반시 접수 안됨)
* 단지모형 : 외곽크기 600㎜×600㎜이하 (축척은 임의, 높이제한 없음)
* 설계설명서 : 3부 (A4용지 5매이내)
* 응모자 전원 재학증명서 각1부 및 작품접수서

◇ **심사**

▷ 심사위원 : 사외의 권위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주공 홈페이지에 공개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

▷ 결과발표 : '01.8.31(금) 10시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시상**

당선작은 주공사장상 및 상금지급(입선작 수는 작품수준에 따라 조정가능)
- 최우수상 1작품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 2작품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장려상 10작품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입선 20작품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작품전시**

전시대상 : 입선작 이상 작품.
전시장소 및 기간 : '01. 9.3~9.7 까지 대한주택공사 본관2층 홀에 전시.

◇ **작품반환**

낙선작은 '01 .9.3~9.7 까지, 당선작은 '01. 9.10~9.14 까지 회수하여야 하며 반환기한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공사에서 임의처리

◇ 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전화031-738-4132~3, 팩스 738-4139

정림포럼

정림건축에서 매월 1회

(주)정림건축은 그동안 사내에서 열어오던 토요세미나를 공개세미나로 확대하여 6월 23일부터 매월 한차례씩 개최키로 했다. 올 해 주제는 '크로스오버(Cross-over)' (부제: 탈장르적 문화환경에 대하여)이며, 건축을 보는 타문화계의 시각을 알아보고, 분야별 시대적 흐름과 주요 관심사, 예상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행사는 정림건축 사옥내 나들목 사랑의 교회강당에서 매회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02-708-8748
www.junglim.com

◇**일정**
- 6월 23일: 타예술의 시각으로써 분석하는 건축/김원식(한양대 건축공학부 겸임교수)
- 7월 21일: 어반 보이드/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8월 18일: 설치미술, 경계로부터의 자유/서현주(조각스튜디오 Pine Pole)
- 9월 29일: 현대미술과 비디오아트/문주(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 10월 27일: 건축에 있어서 사고의 흔적들/서혜림(건축사사무소 힘마)
- 11월 24일: 도시, 영화, 근대성/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12월 22일: 작가론-상황론/이성관(한울건축)

신간안내

새로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중심이탈의 나르시시즘-이종건 건축비평집
전진삼의 비평시대 : 건축의 불꽃
건축물 오염사례와 대책

▷ 새로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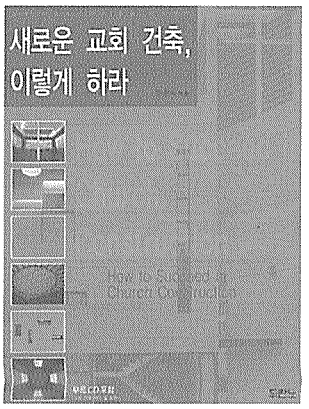
어느 건축물이나 혼자의 힘으로 건축이 완성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종교건축물인 교회당의 경우 이를 추진하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 및 상황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나가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저자 이은석의 새로운 교회건축, 이렇게 하라는 "설계의뢰에서 준공검사까지"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관계자들이 알고 있어야할 최소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서 좋은 교회당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다.

첫 장 모범적인 교회건축을 위하여 에서는 △실용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라 △좋은 설계도를 구하라 △교회건축에서 이런 점은 유의하라 △이런 교회가 아름답다 등 쉬운 언어로 교회건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적시하고 있으며, 두번째 장에서는 모범적인 한국 교회건축의 예를 △아담한 도시형

교회 △도시형 중형교회 △전원형 교회 △복합시설로서의 기독교 문화센터 교회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함으로서 교회건축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마지막 장에서는 교회건축설계 프로그램제작의 용례와 건축진행 과정 등의 지침을 소개함으로서 설계실무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교회당이 본당 중심으로 지어졌고 항상 대규모의 집회만 이뤄지는 폐쇄적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본당의 기능도 다양해져야하고 본당 이외의 부속시설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현대적인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복합공간의 배려가 오늘날 교회에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개신교 교회당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는 이 책은 현재 도시와 농촌에 지어지고 있는 교회당에 대한 아쉬움과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건축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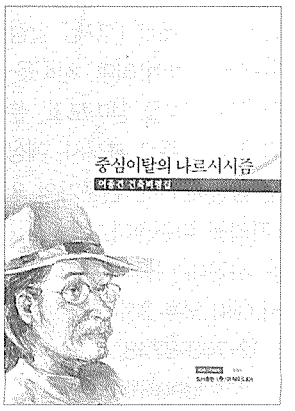


이은석 지음/235쪽/2만2천원/국배판/두란노 펴냄(02-794-5100)

▷ 중심이탈의 나르시시즘 - 이종건 건축비평집

"한 사회의 건축수준은 그 사회에서 수행되는 건축비평의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 이 시대 건축사회를 이끄는 리딩 아키텍트들에게 거침없이 미학적, 철학적, 예술적 잣대를 들이대는 성역없는 비평서가 출간됐다. 비평부재의 건축계에 풍부하고 해박한 인문학적 사유와 다양한 경험을 엮어낸 '중심이탈의 나르시시즘'은 건축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화제의 신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성숙한 비평문화가 없는 우리건축의 현실과 이를 타파하기 위한 비판적 지식인의 역량에 대한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중심이탈의 나르시시즘 - 20세기말 우리 건축을 위한 송사'에서 저자는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건축이 20세기 우리건축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정리없이 지나가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으며, 다시 중심을 찾는 노력을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건축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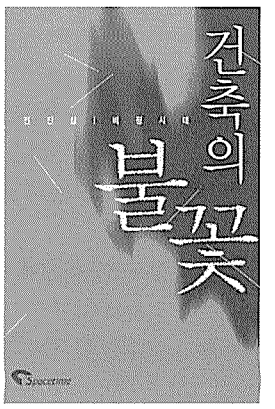
이종건 지음/356쪽/1만3천원/도서출판 옛오늘 펴냄(02-756-8956)

▷ 전진삼비평시대:건축의 불꽃

건축전문도서 출판사인 시공문화사에서 신간으로 '전진삼의 비평시대: 건축의 불꽃'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1990년대 후반부의 한국건축판과 건축물에 대한 비평문을 모은 건축비평집으로 저자가 지칭하는 이 땅의 '건축이웃들'인 일반사회 구성원들에게 건축의 존재를 폭넓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시선이며,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그것의 실체를 '건축주권론'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압축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만화 42컷, 흑백 사진 31컷, 도면 48점과 글을 어울리어 독자들의 보고 읽기에 수월함을 기했다. 모름지기 비평집이 갖는 무게를 한껏 덜어내고자 하는 편집자의 의도와 저자가 평소 행동하는 건축의 대중화라는 사유와 맞아떨어지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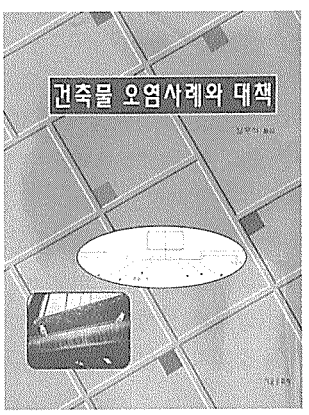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 이전에 '건축의 발견'(1994, 도서출판 미건사)이라는 비평집을 낸 바 있다. 이번 '건축의 불꽃'과 함께 이 두 권의 책으로 1990년대 전반과 후반의 한국 건축을 증거하는 비평가 전진삼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진삼 지음/376쪽/9천5백원/도서출판 시공문화사 펴냄(02-737-3930)

▷ 건축물 오염사례와 대책

지구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건물의 긴 수명화 ·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저감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맞춰 이 책에서는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의 프로젝트에 관여한 제너럴 콘트랙터 6개사가 수년에 걸쳐 수집한 건축물 오염 사례와 대책, 체크리스트 등을 실어 건축물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본건축협회출판위원회 펴냄/ 심우석 옮김/ 167쪽/ 1만2천원/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펴냄

2001년도 상반기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안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건설관련업체)는 소속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소재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수탁기관인 우리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되어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기간 : 2001. 7. 1~7. 31.

◇ 보고내용

- 2001. 1. 1~6. 30일 사이에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의 입 · 퇴사 현황 (입 · 퇴사가 발생한 사무소에 한함)
-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변경내용(해당 사무소에 한함)

◇ 접 수 처 : 소속 건축사회

◇ 보고양식 : 별지17호 서식

-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메인화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각 시 · 도건축사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1999년도 상 · 하반기, 2000년도 상 · 하반기 취업 및 퇴직상황을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도 2001. 7. 31.까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보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미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